

성폭력피해 생존자 보호시설

열린터



열린터는 모든 성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게 하는 터라는 뜻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열린터 전화 02-338-3562 · 팩스 02-338-7122

http://www.sisters.or.kr e-mail:ksvrc@korea.com



열린터는

1991년 문을 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가운데 친족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겪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갖게 되어, 1994년 9월 국내 최초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열린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열린터 식구들

열린터 내담자의 80% 이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또한 80%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입니다. 지속적인 성폭력피해로 인해 긴급히 쉼터가 필요한 여성, 성폭력피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입소기간은 6개월이며, 내담자의 사정에 따라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열린터 지원내용

일상생활지원, 학교생활지원,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문화프로그램, 예술치료, 성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지원을 통하여 성폭력피해 후유증을 극복하여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 생존자 보호시설 열린터



당신이 열어주세요!

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평을 여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원활동

열린터 내담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 학습지도
- 전문 프로그램
- 예체능 프로그램(미술, 음악, 체육 등)
- 여행, 캠프, 문화체험 보조진행

후원활동

열린터 식구들의 80%는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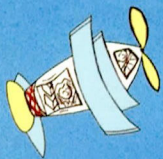
한창 꿈을 키워가는 식구들은 먹고 싶은 것도, 가보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당신이 열린터 식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행 570-327400-13-002 열린터

열린터 지원활동가나 후원자님들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를 보내드립니다. 당신의 나눔이 기쁜 소식이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하담~ 그 아름다운 비행에 함께 하세요~

하담

성폭력피해 생존자 자립공동체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하담 전화 02-338-2890 · 팩스 02-338-7122

http://www.sisters.or.kr e-mail:ksvrc@korea.com

기증

하담의 해, 달, 별 이야기

하담이란

하늘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소망을 품기도 하고, 가기를 희망하는 어떤 곳의 상징입니다. '하담'은 그런 '하늘을 닮다', '하늘을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일시적인 단기보호시설의 한계를 벗어나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공간, 여성들 간의 연대가 돈독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하담은 이러한 소망을 담아 이뤄낸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자립을 준비하는 생활공동체입니다.

하담의 해

18세 이상의 성폭력피해 생존자로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 독립을 준비하는 분이 하담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담인들이 하담의 해입니다.

하담의 달

하담인들을 위해 월 일정액을 납부하면서 하담비행에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담의 달이 되어 어둠을 쫓아낼 달님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담의 별

하담의 별은 수시로 하담을 밝히는 사람이며, 그분들이 후원해주신 귀한 생활품을 상징합니다. 하담에 예쁜 별을 달아주세요.

하담에 해와 달과 별이 만나서...

따로 또 같이

함께 만든 공동규칙을 지키며 서로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생활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며 생활관리는 각자가 그리고 공동으로 함께 합니다.

자립준비

하담에 머무는 동안 독립을 준비합니다.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미취업 상태인 하담인은 취업정보 제공과 연계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하담지기가 함께 합니다.

프로그램

성교육, 상담프로그램(개별, 집단), 새로운 삶을 위한 여행 등을 함께 합니다.

- 후원입금계좌 : 신한은행 219-05-001831
예금주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문의 : T. 338-2890

하늘을 담아, 하늘을 닮아~ 그 멋진 비행의 날개를 펼쳐라!

